

주제: 송구영신예배와 심방예배

강사: 이정현 목사

1. 송구영신예배

이것이 교회력의 절기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지켜오던 전통적인 예배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887년 12월 31일 당시 서울에 있던 정동교회(새문안교회)와 뽀엘교회(정동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드린 것이 최초의 송구영신예배가 되었다. 원래 이 예배는 감리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예배로 그 기원은 요한 웨슬리(J. Wesley)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 예배를 언약예배(Covenant Worship) 또는 언약갱신예배(Covenant Renewal Worship)라고 불렀고 후에 이것을 야성회(Watch Night Worship)로 부르기도 했다. 웨슬리에 의한 최초의 언약예배는 1755년 8월 11일 런던에서 드려졌는데, 후에는 매년 첫 주일에 성찬식과 함께 드리는 재 헌신의 예배가 되었다. 이것을 송구영신예배의 기원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나 후에 이것을 신년예배로 대체하는 현상들이 있었으므로, 이 예배의 기원으로 생각한다. 주로 이 예배 시의 내용은 지난 1년 동안을 회고해 보며 잘못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해에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며 언약을 세우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다.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이 예배를 장로교회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언더우드(Underwood)와 아펜셀러(Appenzeller) 선교사이다. 이들이 1887년에 함께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한국 장로교회에도 전파되어 지금은 교과를 초월하여 절기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게 되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한국목회정보센터에서 이 예배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정보가 유익한 것도 있지만 너무 인간적인 인위적 행위가 많은 것이 단점으로 여겨진다.

정장복 교수가 소개하는 예배의 모델과 본인의 교회에서 시행하는 한 형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구영신예배순서 1)

회상과 감사

전주	반주자	
예배의 부름	전3:1-8	인도자
기도	인도자	
찬송	406장	다같이
회상과 감사기도	다같이	

고백과 회개

십계명 교독

인도자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회 중 :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인도자 :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회 중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인도자 :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회 중 : 살인하지 말라.

인도자 : 간음하지 말라.

회 중 : 도적질하지 말라.

인도자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같이 :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구약성경의 교독	시90:1-17	인도자와 회중
회개의 찬송	332장	다같이
참회의 기도		다같이
용서의 선언		인도자

소원과 기도

신약성경의 교독	롬12:1-21	인도자와 회중
설교	()	목사
찬송	490장	다같이
소원의 기도		다같이

새로운 시간

새해를 알리는 소리		말은이
빛을 받음		다같이
빛의 찬송	248장	다같이

위탁과 파송

위탁의 말씀		인도자
축도		목사
후주		반주자

(송구영신예배순서 2)

예배의 부름	시28:7	인도자
찬송	찬양,감사,경배하라 내 영혼아	다같이
개회기도		인도자
교독문	십계명	인도자와 회중
찬송	460장	다같이
감사와 회개기도	(지난해를 회상하며)	다같이
용서의 선언	사1:18-20	인도자와 회중
성경말씀	사41:8-10	인도자
설교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정현목사
찬송	촛불점화(447장)	다같이
결단의 기도(새해를 위한)		다같이

찬송	486장	다같이
새해의 말씀받기		다같이
헌금 및 축복기도		
찬송	34장	
축도		

정교수가 제시한 예배순서는 전체를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로 정리하고, 새롭게 전개되는 새해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 또는 소원을 기도하는 시간이 설교 전후에 잘 안배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간’에 들어있는 순서들의 의미는 이해하기 어렵다.

본인이 제시한 예배순서도 설교를 중심으로 앞, 뒤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가 들어있고, 특별한 한 순서로는 한국교회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새해의 말씀받기’가 있다. 이것을 약 3년 정도 시행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살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또한 위로와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며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계속하여 이 순서를 예배말미에 넣었다. 앞으로 이 모델에 좀 더 보강하고픈 것은 새로운 형태의 성찬식을 축도 전에 넣는 것이다. 아무튼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 회상함으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한 해를 깨끗이 마무리하고, 주어진 새로운 한 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 기도하는 것이 된다면 유익한 예배라고 본다.

2. 심방예배

심방은 다소 논란이 많은 목회학의 한 주제이다. 이 주제에 관한 견해 차이는 흔히 신학적 견해를 달리 하는데서 온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교인들의 필요에 적당히 대처하기 위하여 그들을 알아야 함으로 심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일에 먼 발치에서 한 두 번 만나는 것으로는 그들의 영, 육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없음으로 직접 방문하여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알지 못하는 한, 그들에게 의미있는 설교를 할 수 없으며, 적절히 지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성도들의 치유차원이든 아니면 예방 차원이든 심방이 목회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사도행전 6장에서 시작된 업무분담은, 심방이 사도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도록’ 되어있고 집사들은 공회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목사가 심방하는 일에 열중한다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본연의 사명 수행이 불가능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심방을 하지 않는 목회자는 없을 것이다. 성경이 보여주는 목회심방은 양면에 어느 하나에만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다. 보다 훌륭한 설교는 교인들의 당면 사정을 잘 알때에 교인들에게 유효 적절한 내용이 꾸며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주고 신실한 자들을 격려하며 교인들의 상황을 잘 알기 위한 심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심방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론과 실재 부분을 예배학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1) 심방의 이론

(1) 심방이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흠으며 그것을 몰아 내려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렘23:2)고 하였다. 여기서 ‘돌아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파카드’(פקד)로 ‘방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를 70인경(LXX)에서는 규칙적으로 ‘에피스키프토’(ἐπισκέπτο, 감독하다, 보살피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심방의 개념이 목양의 기능과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헬라어 단어 ‘에피스키프토마이’는 ‘방문’, ‘심방’이라는 의미뿐 아니라(마25:36, 43, 눅1:68, 78, 7:16, 히2:6, 약1:27), ‘살펴보다’, ‘부지런히 돌아보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행6:3, 히12:15). 현대영어역본(NASB 참고)에서는 이 말들을 ‘지킴’, ‘간호함’ 혹은 ‘돌봄’으로 번역하여 심방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했다. 그래서 어원적 의미로 본다면 ‘시찰을 통하여 형편을 알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어원적 의미를 근거로 심방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찾아서(visit) 함께 예배하며(worshipping) 상담하고(counseling) 문제를 해결하는(solution) 목회적 행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심방의 성경적 배경-모델이신 예수님

혹자는 심방을 사회적인 현상 즉, 무속적 배경 속에서 출발 했다고 얘기한다. 과거 한국의 역사 속에서 종교의 실제적인 사제역할을 하였던 무녀(巫女)는 그의 단골집을 매년 봄과 가을에 찾아 다녔다고 한다. 이것에 근거하여 교회가 춘, 추계 심방을 구상하고 실행하였다고 하나(주인정 심방학 1997:26-27) 이것보다는 성경적 배경에서 심방을 실행한다고 봐야한다. 다시 말해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며 주님이 모범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것에 진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춘, 추계 심방 외에 출산, 약혼과 결혼, 회갑, 생일, 질병, 개업 등의 애경사에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축하하는 일들이 교회적 선습(善習)이 되었다.

심방의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에서 찾는다. 토마스 C. 오텐의 견해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에서 심방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오텐 목회신학 1990:249-252). 인간의 요구에 의해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주권적으로 임하사 인류를 심방하셨듯이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도 은밀한 중에 가난한 자, 병상의 환자들, 지체 장애자들, 알콜 중독자들, 고아와 과부, 슬픔 중에 있는 자들, 악령에 시달리는 자들,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쓰라린 문제를 같이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오른 편과 왼편에 있을 자를 가르다고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을 자들에게,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35-36)는 말씀과 함께, 이런 자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고 하셨다.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특히, ‘돌아보았고’와 ‘와서 보았다’는 말은 심방과 밀접한 단어이다.

목회 심방에 관한 다른 성경적 배경으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

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행5:42)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서 본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바울은 안디옥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수일 후에 동역자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행15:36)라고 하였다. 복음전파 이후 무관심 속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육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방문하여 살펴서 양육, 돌보고자 한 것이다. 그는 또한 에베소 지역에서 이론 그의 사역에 대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도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행20:20)라고 하였다. 각 가정을 찾아 복음과 유익한 것을 가르쳤음은 곧 심방을 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사 그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은 심방의 모범을 보여주신 모델이시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심방하여(막1:29) 심한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함께 친교했다.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여(눅10:38-42) 위로하며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고 그들과 동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님은 당신과 친근감이 있는 자들만 찾은 것이 아니라 온갖 계층, 온갖 배경과 형편의 사람들을 방문하셨다. 사두개인(마22:23-33), 바리새인(마12:2-6), 헤롯당원(마22:15-22), 로마인(눅7:2), 열심당원(눅6:15), 세리의 집(눅19:1-10) 등을 구별하지 않고 심방 하셨다. 또한 주님은 인간의 삶의 중심터인 가정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 우물가, 길가, 장터, 성전, 세관 등 사람들이 일하거나 생활하는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다. 이처럼 주님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 보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경청하시고, 회개와 신앙으로 부르시며 때로는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방 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심방의 요소를 가르쳐 준다(오성춘 강의안). 첫째로 예수님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심방 하셨다. 둘째로 가정심방에 중점을 두셨지만 가정이라는 콘텍스트만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온갖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셨다. 셋째로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이런 교훈적 요소를 마음에 새기고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다(잠27:23).

(3) 심방의 필요성

곽안련의 고전적 목회학에서 목회적 심방의 필요성을 여섯가지로 말하는데(곽안련 목회학 1996:91-92) 이것을 후대의 학자들이 다섯가지로 요약해 놓았다(김재술, 김병원의 전거서). 첫째는 심방함으로 교인들의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다. 교인들의 생활형편과 신앙상태를 잘 알아야 바르게 지도할 수 있으므로 심방을 통해 이 사실을 아는게 필요하다. 둘째는 심방은 교회발전과 전도에 가장 좋은 수단이다. 심방 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거나 직장의 직원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그들과 접촉하여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셋째는 심방함으로 설교자료를 얻는다. 심방을 통해, 현재 교우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적당한 말씀을 준비하거나 교육할 때 어필한다. 넷째, 기도의 제목을 얻는다. 심방을 열심히 다닐 때 기도제목도 늘어나고 그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간절해진다. 특히 중보기도의 폭이 넓어진다. 다섯째는 심방함으로 교인간의 유대가 두터워진다. 심방을 통하여 불편했던 사이가 화목해지고 교인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다. 이 다섯가지 이유로 인해서 심방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름없이 빛도없이 우리가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겠다.

(4) 심방의 목적

무슨 일에는 목적이 있듯이 심방에도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전 목회와 교회의 일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매우 중요하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을 전인적으로 섬기는 것이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심방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셨듯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둘째, 진리로 권면하여 그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전도의 목적이 있다. 초기 한국교회의 전도는 선교사들 이전에 전도인들이 성경을 들고 관현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심방을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었다. H. G. 언더우드(가) 처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벌써 400여명의 사람들이 전도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의 Protestantism 백산학보 제3호 1967. 11. 서언참고). 또 초기 선교사들도 전도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랑방으로 심방하였고 자신들의 집에 객실을 만들어 전도하기도 했다(이영헌 한국기독교사 1980:96). 오늘날도 심방은 전도의 전략적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실효를 거두고 있음도 사실이다. 넷째,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에서 오는 고난에서 교인을 구원해 내는 것이다. 다섯째, 관계된 개인이나 가족을 친숙하게 알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관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심방하므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위의 목적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호머 켄트(Homer A. Kent)는 그의 책 “목사와 사역”(The Pastor and His Works, Chicago: Moody Press 1963:268-273)에서 심방의 목적을 다음의 9가지로 말한다. “첫째,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둘째, 결석자를 찾기 위하여, 셋째, 새 신자를 환영하기 위하여, 넷째, 복음에 대한 접촉을 갖게하기 위하여, 다섯째, 노령자와 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여섯째, 교인들의 가정 환경을 알기 위하여, 일곱째, 가정예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여덟째, 교회 참석을 고무하기 위하여, 아홉째,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표하여 보여주기 위하여”라고 했다. 앞서 지적한 목적과 일맥 상통한 내용들이지만 참고가 되기 바란다.

(5) 심방의 종류

김병원, 김재술 씨는 각자의 책에서 심방의 종류를 대 심방, 일반심방, 특별심방으로 나눈다(김병원 목회학 1985:260-264, 김재술 목회학 1982:61-65). 대 심방은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씩 전 교우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심방을 말한다(최정성의 논문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대 심방을 하는 목회자가 43%나 되었다). 봄철 심방에는 한 해의 첫 출발을 신앙으로 하도록 격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가을철 심방에는 풍성한 영적 결실을 독려하는 면과 다음 해에도 헌신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대 심방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지도자가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돌아보게 된다는 점과 초신자들이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대원들이 교인의 사정을 잘 알게 됨으로 위로와 해결책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심방 동행자가 많을 때 심방의 영적 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 심방대원이 많음으로 왕래할 때 덕스럽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장소가 협소한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일반심방은 지역이나 구역에서 매주(적어도 한 차례이상) 교인 가정을 심방하고 교회에 보고하는 것이나 목사가 주간에 한 두 차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심방을 말한다.

특별심방은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자나 유고자(병고, 재고, 애경, 기타)를 확인하여

그 가정을 방문하는 심방을 말한다. 이 심방에는 환자심방, 축하심방, 새신자 심방, 환란자 심방이 있다. 환자심방은 일반환자, 난치병 환자, 노환, 정신병 환자를 대상으로 심방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며 때로는 병과 연관된 죄를 지적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면도 있어야 한다. 축하심방은 출산, 결혼, 회갑, 생일, 집 구입, 진학, 진급, 개업 등등의 일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체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새신자 심방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여 교회에 등록된 사람을 찾아보는 것으로 신앙의 첫 출발을 격려하고 앞으로 무엇을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활기찬 교회생활을 당부하는 방문이다. 환란자 심방은 영적, 육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이단이나 사이비에 유혹된 자, 시험에 든 자, 낙담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실직한 자, 핍박받는 자 등등)를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6) 심방을 기피하는 이유와 그 대책

목회자가 신학적인 이유로 심방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게으른 탓으로 심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대 도시교인들이 심방을 기피하고 있기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돈다. 목회자로 인한 이유는 우리와 무관하므로 빼 놓고 여기서는 현대인들이 지도자의 심방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 첫째, 심방의 본래적 의미결여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농경시대의 심방전통을, 사람 만나기 어려운 현 시대에서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출석의 증가나 교회 헌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회로 생각한다면 심방의 본질은 상실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심방대원들의 말 잔치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셋째, 심방대원들의 예의 없는 행동 때문이다. 넷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심방이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찾아준다는 느낌보다는 물려온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여섯째, 래포(Rapport)형성이 안된 분위기 때문에, 일곱째, 도시생활의 압박과 피곤함 때문에, 마지막은 헌금이나 대접의 부담감 때문이다. 이것 외에 자신은 심방을 받지 않아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심방을 기피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농, 어촌보다 도시의 교회가 더 심각하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찰해 본다. 첫째, 목사나 교회가 피 심방자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새 교인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자기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을 때라고 한다. 둘째, 심방의 본질과 목적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야하고 이중적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셋째, 심방을 받는 개인이나 가정을 친숙하게, 구체적으로 알려고 해야 한다. 피 심방자의 정서, 학력, 문화, 경제, 가족사항, 종교적인 면들을 상세히 알아야 그들에게 적당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현명하게 상담할 수 있고, 위기에 협조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아도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일과 덕이 되지 못할 얘기는 삼가 해야 한다. 넷째, 위로하는 말과 교제의 주 내용은 언제나 진리여야하고 주님이어야 한다. 문제 이상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교제와 대화의 내용이 너무 세속적인 것에 기인한다. 다섯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예절, 심방의 기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의나 상식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야 한다. 여섯째, 피 심방자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어려움에 깊이 동참하도록 하라. 일곱째, 심방자는 모든 주의를 피 심방자에게 맞추고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도록 하라. 이상 일곱가지 항목이 심방 기피증을 치유하는 완전한 처방은 아니지만 많은 효과는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7) 새로운 심방체계

지금까지의 심방체계는 지도자가 주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피 심방자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상담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점점 더 목회자의 투입이 용이하지 않으며(바쁨, 교통사정, 교회의 당면과제...), 또한 심방을 받는 자들의 상황도 예전과 같지 않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심방형태가 제안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도자가 대상자를 ‘찾아가는 심방구조’(Go-Visitation Structure)였다면 이제는 교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찾아와 만남으로써 심방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찾아오는 심방구조’(Come-Visitation Structure)와 통합하여 병행하는 이른바 ‘쌍방 통행적 심방구조’(Both Ways-Visitation Structure)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찾아오는 심방구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목회자의 주간 일정표에 성도들을 ‘찾아가는 날’과 ‘만나는 날’을 계획해서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각 기관의 임원들을 그룹으로 찾아오게 해서, 기관의 문제를 상담해 주고, 기관이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목회의 협력자가 되도록 격려하며 기도한다. 그리고 비밀 유지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수요일 오전에 시간을 할애하고,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전용회선과 따로 시간을 정해서 광고하는게 좋다. 최근에는 전자우편이 보편화 되어있으므로 지도자의 e-mail 주소를 알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가상공간으로 찾아오게 한다. 물론 문제가 있더라도 시, 공간의 문제나 개인의 성격상 찾아와서 심방을 받는다는게 쉽지 않겠으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 부분의 심방구조를 강화하여 쌍방 통행적 심방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때 심방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2) 심방의 실제

(1) 심방자와 동행자의 자세

심방자는 첫째, 잃어버리고 상처 입은 어린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하라. 둘째, 충성된 종의 심정으로 하라. ‘심방자는 상대방에게 심판자나 지도자, 또는 감시자나 선생으로 군림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섬기는 자요, 돕는 자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주는 자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박원근 목회심방의 이론과 실제 1997:57). 셋째,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넷째, 교회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다섯째,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하라. 여섯째, 결과를 주님께 맡겨라.

동행자의 자세로 첫째, 몸이 불편한 자는 스스로 동행하지 말라. 둘째, 복장을 단정히 하라. 셋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며 겸손히 순종하고 종의 자세를 가져라. 넷째, 예의바르게 행동하라. 다섯째, 예배태도에 모범을 보여라(성경찾기, 찬송부르기, 말씀 듣는 태도 등). 여섯째, 성도간의 신의와 화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언행은 절대로 삼간다. 일곱째, 심방자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논쟁하지 말라.

(2) 심방요령

① 심방 받을 자의 자세

최문길 씨는 사도행전 10장 24-35의 말씀을 근거로 피 심방자의 준비에 관해서 네가지로 말했다(강의안). 첫째, 고넬료는 정성스런 예배준비를 하였다(7-8). 둘째,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24).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심방대상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불러 모아놓고 심방을 받아야 한다. 시간상의 문제나 신앙을 반대하는 남편으로 인하여 어

려움은 있겠으나 그래도 모아놓고 말씀을 기다리며 은혜 받을 자세가 필요하다. 남편이 심방을 받을 때라면 온 식구들과 이웃 사람까지 초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베드로를 영접할 때 발 앞에 엎드리어 절했다(25). 넷째,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33, 44). 성령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의 심방을 통하여 성령받고, 세례받고, 이방 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45-48).

이것을 현대와 비교하여 몇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는, 심방 받을 사람은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전화선을 뽑는 것, TV를 끄는 것, 빨래를 걷는 것, 소리나는 아이들의 장난감, 등등을 지혜롭게 처리한다. 둘째는 예배를 준비한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작은 예배상을 준비하고 적당히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앉을 방식까지 세밀히 준비한다. 외국에서는 현관에 ‘저희 집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글귀를 써서 붙여 놓기도 한다. 셋째는 기도로 준비한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없기를 위해서, 지도자가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며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심방대원들의 영육적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한다. 넷째는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한다. 다섯째, 심방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간단한 음료나 다과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다. 여섯째, 천사를 맞이하듯 기쁜 마음으로 심방 대원들을 맞으며 공손히 인사한다. 일곱째, 돌아가는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들이 차를 타고 갈 때까지 배웅한다. 여덟째, 들은 말씀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과 함께 나눈다. 교회에서는 이런 규칙들을 세워서 광고하고 교육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

② 각 경우의 심방요령

우선 보편적인 입장에서 심방요령을 아담스(J. E. Adames)의 글에서 요약해 본다. 그는 가정심방의 요령을 다음 여섯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목회연구 서울:CLC 1998:106-112). 첫째, 집에 들어가기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집안의 상황을 판단하고 또한 피심방자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리에 앉기이다. 아무데나 앉지 말고 주인이 마련한 곳이나 지시하는 곳에 앉고 주인은 심방자의 맞은 편에 위치하는게 좋다. 셋째, 대화이다. 아담스는 말씀을 읽기 이전의 이 순서를 그 가정의 특별한 문제를 아는 시간으로 중요시 했다. 심방자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피심방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심방시간으로 그는 20분에서 1시간이 적당할 것으로 본다. 각 가정당 1시간 정도 소요한다는 것은 심방의 차원을 넘어 상담 성격이 강한 것 같다. 다섯째, 성경읽기는 적당한 성구를 찾아 적은 분량을 읽되 분명하게 해석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기도로 마친다. 심방을 마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는 논의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기쁨과 감사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

방지형은 크리스웰(W.A. Criswell)의 말을 인용하여 심방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일곱가지로 말한다(방지형 기초목회학 1997:223-224). 첫째, 심방은 신앙 중심이어야 한다. 둘째,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심방할 때 어느 한 사람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정규 심방은 짧은 시간에 끝내도록 한다. 다섯째, 심방 때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여섯째, 모든 경우에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일곱째, 심방은 항상 기도로 끝내도록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므로 참고사항이 되기를 바라고 아래의 각 경우의 심방요령에 주의하기 바란다.

병원심방이 때로는 불쾌하고 난처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강할 때는 복음을 잘 듣지 않아도 병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가 많으

므로 지도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상황이 임신하였을 때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라고 한다. 호기를 선용해야 한다. 병원 심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규칙을 알아야 한다. 둘째,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라. 환자에게 급하다는 인상과 직업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것이 효과적인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20분이면 적당하다. 심방시간이 길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급히 나가려고 한다는 인상도 주지 말아야 한다. 여럿이 사용하는 병실이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잠깐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함으로 동의와 양해를 구한다. 찬송은 낮은 목소리로 가사를 생각하며 1장정도 부르고,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돌보심, 위로하심, 소망적인 부분을 톡톡히 읽고 간단하고 분명히 핵심을 전한다. 기도는 안수를 하거나 손을 잡고 기도해도 무방하다(예). 요점을 들어서 간결히 믿음으로 기도하되 병실에 같이 있는 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말라. 단 찬송, 설교, 기도할 때 고성을 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은 예가기도로 마친다. 만일 성경을 읽을 형편이 되지 못하면 기도할 것이요, 기도드릴 형편도 안되면 격려와 위로를 할 것이다. 셋째, 심방자 자신이 앓았던 병이나 환자의 병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넷째, 환자의 침대에 앉거나 소유물을 침대에 놓지 말라. 다섯째, 환자가 말할 때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할 때 동정적으로 도와 주라. 마지막, 부정적인 언행을 하지 말라.

만일 수술환자가 있다면 수술 받기 전날에 심방을 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권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있는 자를 심방할 때는 반드시 구원과 천국, 주님에 대해서 말하며 확신을 주어야 하고 유언이 있을 시 가족들과 함께 잘 들어준다.

경사(慶事)가 있어서 개인 집으로 심방을 하게될 경우는 우선, 밝게 웃으며 기쁜마음으로 축하한다. 돌, 회갑, 진급, 입택, 개업, 진학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형제를 돌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인도할 수 있다. 찬송은 경쾌하고 조금 빠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곡을 부른다. 성경말씀은 은혜와 감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읽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더 믿음의 진보가 있으며, 번창하고, 배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 한다. 기도는 간결하게 하되, 심방 이유의 핵심을 빼먹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은 예가기도로 마침이 좋으나 때로는 ‘아론의 축도’(민6:24-26)를 하기도 한다. 예배이후 축하의 선물을 전달하고 음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경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조사(弔事)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경사 때보다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경사보다 더 빨리 대처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들은 사망, 경미한 교통사고, 사업의 부도, 실업, 자녀가출, 가정불화, 외도,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신앙방해, 도난사고, 시험 등등이다. 각각의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므로, 그 상황과 피 심방자의 영적 수준에 맞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 발생시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심방을 받을 수 있다. 메시지와 찬송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기도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는 것과 자신을 돌아보는 회상과 인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원망과 불평, 시비와 논쟁, 비판은 절대 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한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속히 돕는다. 심방자와 동행자의 언행이 무례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다음은 근무지에 찾아가서 심방하는 직장심방의 요령이다. 직장심방은 신중을 기해야하며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위해 점심시간이 좋겠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서로 상의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겠으나 직장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피 심방자와 회사

의 사정을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심방자는 혼자 가거나 한 명의 대원을 대리고 가는 것도 무방하다. 동행자는 그 직장과의 관련 있는 신앙인이면 좋다. 대부분은 사전 약속을 하고 방문하지만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이들은 일부러 만나기를 회피하기도 함으로 지나가다 들린 것처럼 사전 통보 없이 갈 수도 있다. 간단한 차 정도의 대접은 몰라도 점심이나 교통비 등의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예배드릴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될 때는 찬송, 성경봉독과 설교,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면 성경을 읽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친다. 성경은 가급적 그 직종과 하는 일에 부합되는 것을 읽어야 한다. 특히 기도할 때 회사와 직장상사와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변변찮은 직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관을 만나 인사정도는 할 수 있고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으며 혹 주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 효과가 있다. 직장심방은 그 사람의 신앙과 생활과의 관계를 살피고 힘든 생활을 위로하는 좋은 기회이다.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은 심방할 때는 점심시간이나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나 학교근처의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시험 전 시간은 피해야 한다. 만나면 우선 마음이 편하도록 배려 해주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접근한다. 학생신분에 알맞은 말씀이나 젊은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와 미래를 설계하기에 적당한 성구를 읽고 권면하고 같이 기도한다. 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 즉 성적, 이성친구, 학교에서 있었던 좋지 못한 일에는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새가족 심방은 매우 즐거운 일이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처음 새가족을 만나게 되므로 이 심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와 심방자에 대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심방은 주로 교역자가 할 것이나 평신도 지도자가 반드시 동행한다. 평신도 지도자나 부 교역자에 의해서 새가족이 원하는 심방 날짜가 협의되면 심방자는 심방일시를 메모해 놓고 준비한다. 심방대원으로는 교구담당 교역자, 지역장, 구역장, 그리고 해당되는 선교회장이면 적당하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동반은 신자와 신자를 이어주고, 선교회와 구역에서의 예배와 친교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목회자가 초인종을 누르기보다는 약간의 긴장과 당혹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 교역자나 다른 지도자가 벨을 누르는게 좋겠다. 피 심방자를 보면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들어가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저희교회에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환영사를 한 후 예배는, 간단한 개회기도로 시작해서 찬송, 성경봉독과 설교, 기도, 예가기도로 마친다. 찬송은 가급적 쉽게 부를 수 있으며 읽을 성구와 연관된 곡을 선택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 인도, 사랑, 은혜, 구원과 관계된 것을 읽고 설교는 간단하면서도 논리정연하고 감동적이며 확신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의 기도는 새 가족이 관심을 갖고있는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다. 주어진 말씀에 따라 기도하되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리 들은 문제를 놓고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배는 약 15-20분이면 끝난다. 예배이후에 처리해야 할 일은 먼저, 동행자들을 소개하고 가족들의 신앙생활 여부와 등록하게 된 이유들을 조심스럽게 알아보는 일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 심방 간 집을 너무 자세히 살피거나 들여다 보면 곤란을 느낀다. 예를들어 집평수, 남편직업, 학력, 자녀들의 성적, 차종, 그리고 방안이나 화장실의 구조 등등을 살피는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알게된다. 그래서 심방자는 캐묻지 않아야 하고 덜 미안하고 덜 부담스럽도록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심방자의 목회적 관심을 보여주며 소속감을 주고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 ‘가정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어려운 일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라는 말을 일러둔다. 그리고 교패를 다는 것은 '교패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음 편한대로 하세요'라고 말한 후에 반응을 보아 부착한다. '붙이세요', '떼고 붙이세요', '교패를 주고 가시면 제가 붙일게요' 등의 반응을 보아 새가족의 뜻에 따른다. 이어서 다과가 나오면 감사기도를 하고, 간단히 친교하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말로 정중히 인사한 후 헤어진다.

3) 결론

현행심방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는 대부분 다양한 이유로 심방을 한다. 지금까지의 방문은 교인관리 차원의 심방이 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그 초점이 양육, 예배 그리고 전도로 이양해야 하겠다. 이것이 성경적이며 교회에 유익하고 바람직한 심방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로는 심방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위주의 심방과 일방적 심방구조는 문제가 있다. 교회 일에 소극적이며 뒤로 쳐져있는 많은 남성들을 위한 심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남자 성도들을 위한 심방의 내용, 시간, 공간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해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남성들을 하나님의 일에 효과적으로 영입할 수 있다.

심방의 구조에 관해서도 심방자가 성도들을 방문하는 기존의 방법과 교인들이 상담자와 목회자를 찾아오는 쌍방적 심방구조가 이루어져야 심방의 효과가 뛰어날 것이며 그 결과 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현 심방의 변형된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전화는 긴급히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심방하는데 좋은 도구이다. 자리에 없을 때, 메모리 장치가 되어 있다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서 더욱 좋다. 팩스도 심방이용 도구가 될 수 있고,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 컴퓨터의 e-mail, 화상전화시스템도 중요한 미래의 심방수단이 될 것이다.

심방이 개인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목회자의 목회방향을 인식하게 되며 목회자와 친밀감을 갖게되고 교인들의 신앙이 건전하고 바르게 자라게 되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교인들의 사명을 인식시켜 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로 변하게 되고 교우들 상호간의 인화 단결을 가져와 서로 사랑하게 되며 소속감을 갖게되어 부서 활동이 원만하게 되며 더욱더 교회가 성장한다. 다시말해 심방을 통하여 건전한 인간 관계가 유지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